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보도가능

부산중기청,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중소기업 지원체계 점검

- '26.05.21.(목) 제5차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개최
- 중동 수출 감소·물류 차질·원자재 수급 애로 대응방안 논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산지역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5월 21일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서 '2026년 제5차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기관 협업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부산중기청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부산중기청, 중진공 부산지역본부, 기보 부울경지역본부, 신보 부산경남영업본부, 소진공 부울경지역본부, 부산TP, 부산창경센터, 부산신보재단,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참석기관들은 기관별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신설된 피해기업 특례보증과 협약보증, 상환유예 특례조치, 소상공인 생활문화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을 점검하며 기관 간 협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2026년 신설사업으로 푸드, 패션, 뷰티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억원, 공동신청 시 최대 3억원 지원

부산중기청이 중소기업 통계시스템과 중동 전쟁 피해신고센터 접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중동 전쟁 이후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대(對)중동 수출액은 2026년 3월 기준 1,254만 8천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對중동 수출액 : (2025년 3월) 29,291,185 달러 → (2026년 3월) 12,548,428 달러, 57.2% 감소

5월 19일 기준 부산중기청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총 54건이며, 주요 애로는 운송 차질 28건, 계약 취소·보류 23건, 물류비 증가 19건 등으로 파악됐다.(복수 응답 포함)

이청일 청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원자재 확보, 물류비 증가 등 관련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으로 마련된 정책금융·보증·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 별 지원수단을 공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호정 (051-601-5102)
			팀 장 배소혜 (051-601-5103)
		담당자	주무관 김한진 (051-601-5104)

붙임 **제5차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개 요

○ **(일시/장소)** 2026. 5. 21(목), 14시 부산TP 엄궁단지(2층 비즈니스미팅룸)

○ **(참석대상)**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소협의회) 구성 위원(9명)

○ **(주요내용) 중동전쟁관련 현안점검** 및 기관별 주요 현안 등

□ 제5차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위원 명단

구 분	연 번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소 협의회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이청일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이지우	
	3	기술보증기금 부울경지역본부	본부장	김종빈	
	4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본부장	정희주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	본부장	윤석철	
	6	(재)부산테크노파크	원 장	김형균	
	7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김용우	
	8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구교성	
	9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전의준	